

동양 고전에서 배우는 인간과 삶 그리고 행복

인간의 길, 고전에서 묻다

기세규 | 시와사람 | 1만 5000원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보낼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 이 시대 최고 경영자로 추앙받는 스티브 잡스에게 인문학은 삶의 나침반이면서 존재

의 의미였다고 한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그는 인류의 깨달음이 축적된 고전에서 해답을 찾았고, 고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강한 기업으로 성장한 애플은 그 결과물이다. ‘인문학이 없었다면 나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을 것’이라는 빌 게이츠나 평생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가짐이라며 항상 ‘논어’를 탐독했다는 삼성전자 이병철 창업주가 아니더라도 고전이 지닌 힘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문학이 대세가 된 지금, 광주유학대학 교수인 기세규 인문경영학 박사가 공자와 맹자 동양의 인문학을 통해 인간의



지난 3월 광주유학대학에서 열린 2024년 광주유학대학 입학식 및 개강식에서 기세규 인문경영학 교수가 동양의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기세규 교수 제공

길을 탐구한 ‘인간의 길, 고전에서 묻다’를 출간했다. “불가(佛家)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 감성으로부터 자신을 곧바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알아차림’이듯 동양 고전을 통해 독자들에게 ‘알아차림’ 방법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게 기 교수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그동안 기 교수의 강연과 논문을 비롯해 전남일보를 비롯한 신문과 잡지 등에서 다룬 내용을 엮은 것이다. 인간의 길에서 행복 찾기, 삶의 총량 더하기, 인간의 욕망은 필연, 바름의 질서 등 소재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록된 글도 인간과 삶, 행복과 윤리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그는 논어의 학이(學而)편

첫 단락에 나오는 ‘인부지이불은 불역군 자호·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느냐)’라는 문장을 들며 분별 없는 성냄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공자의 평생 화두인 ‘서·후(용서와 사랑)로써 입장을 바꿔 남의 처지를 헤아릴 것도 권유한다. 장자의 잡편 가운데 척양편에 나오는 ‘와우각상지쟁·蝸牛角上之爭’을 소개하며 좁디 좁은 세상에서 부질없는 싸움, 애써 다투봤자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는 쓸데없는 싸움을 경계하는 대목에서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 진다.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맹자는 왜 혁명의 정당성을 말했는지, 인류의 정신문화를 열었던 위대한 스승의 시대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다양한 동양고전을 통해 명쾌하게 분석해 냈다. 수천 년 전 선현의 가르침은 오늘 날에도 인간의 삶의 가치를 규정 짓고 있는 만큼 어렵게만 느껴지는 우리 고전 사상을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알려 주고 싶었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그가 책을 낸 이유도 유교를 중심으로 한 동양고전이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현대와의 비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전 문구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앞서 무엇보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독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싶은 욕심도 많았다. 앞으로 남은 숙제도 ‘우리 후대들이 인생살이의 많은 지혜가 고전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대와 술 마시며 인생의 만고 시름을 마음껏 녹여 버리자’는 이백의 장진주와 ‘한 잔 먹세, 또 한 잔 먹세그러, 꽃 거 산 노코 무진무진 먹세그러’라는 송강정철의 ‘장진주사’처럼 술과 고전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싶다는 꿈도 야무지고 멋지다.

1955년 광주 임곡동에서 성암공 기운섭의 7남매 가운데 4남으로 태어난 기 박사는 조선조 성리학자 고훈 기대승의 13대 손으로 광주지역사민속박물관회 자문위원과 광주향교교화사석, 성군관광주시본부교육원장 등을 역임하며 동양고전대중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인간의 길, 고전에서 묻다’ 출판 기념회는 30일 오후 2시 광주향교 유림회관 2층에서 열린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수포자도 이해하는 최소한의 수학 용어 사전

평생 써먹는 수학 용어집

사사키 준 | 시그마북스 | 2만2000원



‘수포자(수학포기자)’라는 신조어가 이제는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을 정도로,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 학

창 시절, 수학 시간만 되면 많은 친구들이 책상에 엎드려 꿈나라로 도피해버리던 풍경을 기억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고2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은 16.6%로 나타났다. 고2 학생의 6명 중 1명은 수포자인 셈이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애써 외면하고 싶어도 수학은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데이터사이언스와 AI 등, 끝없이 진보하고 있는 기술의 저변에는 수학이라는 기초 학문이 깔려 있다. 당장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스마트폰과 A4 용지에도,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주문을 할 때도, 사과 11개를 세 사람에게 나누어주려 할 때도 우리는 수학의 법칙을 활용하고 있다. 단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많은 이들이 수학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거치는 일종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작동하는 법칙과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수학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바뀌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가려면 역시 수학이 필요하다. 비록 부족하고 느슨할지라도 우리가 수학을 완전히 놓진 말아야 하는 이유다. 수학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창이다.

‘평생 써먹는 수학 용어집’은 수학과 친해지고는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한 이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중·고등학교 수학의 범위는 실로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려면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 책

은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궁금한 것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수학 용어를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그림을 실은 ‘최소한의 수학 용어 사전’이다.

이 책에는 12개의 챕터에 걸쳐 총 103개의 테마가 수록되어 있다. 원주율부터 루트, 제곱,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 확률, 미적분, 벡터와 도형까지, 수학에서 중요한 용어의 핵심을 ‘대략적으로’ 해설해, 중·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용어 중심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은 사전이므로 반드시 첫 페이지부터 읽지 않아도 된다. 목차와 찾아보기를 참고해,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부터 펼쳐보며 수학의 기초 체력을 차근차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해했다면 실무에서 활용해보기를 권한다.

도선인 기자

점거당한 집

최수진 | 사계절 | 1만5000원

제4회 박지리문학상 수상작. 경정편이 아닌 단편 묶음이 수상한 것은 처음으로, 세 편의 단편은 마치 한 편의듯 근미래의 사회를 공유하며 흘러간다. 2031년 원전사고 이후 저마다의 일상을 투쟁하듯 살아가는 시민이자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광주, 용인, 경주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법한 재난을 겪은 사회, 그 속에서 다시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자 예술가들의 행보는 아이러니하게도 미래에서 보내온 과거의 이야기 같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백남준아트센터 등 공공공간을 점거하는 소설 속 시도는 독자에게 정말 일어날 일인듯한 기묘하고 재밌는 감각을 선사할 것이다.



한옥 적용기

정기황 | 뽕간소금 | 1만8000원

‘한옥’이라는 말은 개항 이후 1908년에 정동 지역에서 양옥, 일본 가옥(일옥)과 구분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고, 1970년대에 정부와 언론 등에서 적극 사용하며 전통 가옥을 통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조선시대 가옥집은 소수의 양반만이 사는 큰 규모의 주거 양식이었고,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가옥집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규모가 작은 ‘도시한옥’이다. 도시 연구자이자 건축가인 정기황 저자는 한반도 전통 가옥의 역사를 꼼꼼하게 되짚는다. 건축기술 측면 뿐 아니라 한반도의 기후와 지형, 그리고 집과 건축에 대한 사회문화 권력의 개입 측면까지 두루 살핀다.



팀장의 원칙

로렌 벨커 외 2인 | 비즈니스북스 | 1만 8800원

1981년 미국에서 초판이 출간된 ‘팀장의 원칙’은 명실상부 팀 매니지먼트 분야의 고전으로, 독자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14년 만에 국내에서도 재출간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팀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법, 서로간의 위험 성향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하는 법, 납득할 만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법, 원격 근무 팀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 등 변화하는 업무 환경과 시대 흐름을 반영해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담았다. 어느날 갑자기 팀원이 생긴 당신, 혹은 N년째 팀장이지만 여전히 관리도 리더십도 어렵지만 한 당신에게 이 책은 든든한 사수가 되어줄 것이다.



전직 언론인이 쓴 아날로그 사랑

메아리 사랑

김용욱 | 동산문학사 | 1만5000원



어느 때부터인가 소설을 쓰고 싶은 청년이 있었다. 그것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

청년에게 사랑은 사람의 가장 원

초적인 욕망이면서 남성과 여성, 서로 다른 이성을 향한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소설을 쓰기 전 몇 권의 책과 인기 작가의 책을 탐독했다. 나의 소설을 읽을 분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청년의 회상이다.

청년 시절 소설을 쓰고 싶었던 소년, 그 소년이 8순을 맞아 장편 ‘메아리 사랑’ (동산문학사)을 발간했다. 한국기자협회 전남도지부장을 역임하고 전남일보 편집국장 겸 주필 겸 상무를 겸임했던 김용욱 씨가 주인공이다. 소설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인 사랑을 주제로 한다. 젊은 시절 이성을 향한 감정은 여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다. 보편적인 모티브이지만 개인에게는 특수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사랑은 영원한 주제다.

소설은 저자가 이전에 수필로 발표했던 글에서 주인공 민호의 이야기로 먼저 소개된 바 있다. 지난 2010년 대략의 열개를 잡은 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소설로 완성됐다. 주인공은 모두 4명. 28세로 잡지사 편집장이자 대학 강사인 민호와 보험회사 내근사원 박희주, 영문학 조교수인 울드미스 서지은, 중학교

미술 교사인 한설에 등이다. 작가는 우수에 젖은 남성으로 과감성이 2% 부족한 남자 민호와 그를 사랑하지만 지극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개성 강한 희주, 첫사랑에 실패해 삶의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서지은, 지성적이지만 모든 면에서 개방적인 한설에 등을 통해 이들의 삶과 생각, 그리고 사랑이야기를 그렸다.

‘20대와 40대를 살아가는 4명’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랑하는 방법과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을 들여다 보고 싶었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삶의 좌표를 잃고 표류하면서 결국 격랑에 휩쓸리고 마는 저들의 이야기를 통해 순애보 같은 사랑, 아날로그 방식의 사랑도 그려보고 싶었다. 작품 제목을 ‘메아리 사랑’이라고 붙인 것도 표류하면서 격랑을 헤쳐가는 저마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주는 허망함과 허탈감 때문이다.

작가는 “지금의 잣대로 보면 낡은 사랑 이야기라 여겨지지만 그래도 그런 사랑을 그려보고 싶었다”면서 “아날로그 방식, 어쩌면 순애보 같은 사랑이 내 의식 저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까닭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전남도지부장을 역임한 작가는 전남일보 편집국장 겸 주필 겸 이사를 역임했고 광주대 신방과 겸임교수와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위원 겸, 광주중재부 중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제44대 광주광역시 초교파장로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크리스천 문학 신인상(수필 부문)도 수상했다.

도선인 기자